

아시아 문화를 품고 세계로 ... 광주시민의 삶 '문화'가 된다



‘문화수도’ 광주의 문화발전소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개관(2015년 9월4일)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15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부지에서 첫삽을 뜬 지 10년만이다.

문화전당 개관은 광주를 21세기 아시아 문화를 선도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첫 걸음이다. 이 공간은 문화의 블루칩으로 통하는 문화산업의 거점이자 아시아 교류의 장이 된다. 광주시민들은 문화전당의 수준높은 공연과 전시의 첫번째 관객이 되고, 창작물은 해외 관객들에게 선보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 아시아 문화 교류의 장

9월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구성하는 5개원 가운데 신축중인 4개 건물(문화창조원·예술극장·문화정보원·어린이문화원)의 공정률은 96%에 달하고 있다. 내년에 민주평화교류원까지 완공되면 문화전당은 7월 부분 개관을 거쳐 9월4일 전면개관한다.

문화전당은 연면적(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넓이·16만1237㎡로 지금까지 국내 최대였던 국립중앙박물관(13만7290㎡) 보다 넓은 초대형 복합문화시설이다.

추진단은 오는 10월 신축건물들에 대한 건립공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5월 까지 시운전 등을 거쳐 8월까지 완벽하게 개관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화전당에서 선보일 핵심 콘텐츠(전시·공연, 운영 프로그램)는 지난 8월말 확정됐다. 문화전당을 대표하는 공연무대인 아시아예술극장에서는 연간 45~48개에 달하는 공연·축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문화전당을 구성하는 5개원 가운데 민주평화기념관, 아시아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 파크, 문화창조원 다목적 홀의 전시와 일부 공연은 무료 개방돼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리게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민주평화교류원

광주항쟁 3대 정신 전파



광주항쟁의 3대 정신인 민주·인권·평화를 예술로 승화한 프로그램을 구축, 운용한다. 대표적인 상설전시 프로그램은 가칭 ‘열흘간의 나비떼’를 주제로 펼쳐진다. 이 전시는 광주항쟁 열흘간의 이야기가 서사구조에 따라 펼쳐진다. 극장식 감성체험이 가능한 22개 전시콘텐츠로 구성된다. 이 전시는 옛 전남도청 별관, 회의실 등 6개 건물에서 선보인다. 기획전시로는 아시아 현대미술전 ‘아시아 민주주의의 거울과 모니터’, 특별전 5·18 스토리텔링 ‘그 너머의 진실’ 등이 관람객을 만난다. 이 전시는 광주항쟁 당사자들이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5·18 광주항쟁을 들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민주평화교류원은 아시아 각국 정부, 문화예술기관 등과 교류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공적개발원조(ODA)를 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아시아문화장관 회의(2015년9월), 세계문화포럼(2016년9월), 아셈(ASEM)문화장관 회의 유치(2016년10월) 등은 역점사업이다. 유네스코 창조산업 전문기구, 아시아문화도시 사무국 유치도 민주평화교류원 현안의 하나이다.

아시아 문화정보원

문화자원 수집 콘텐츠화



스토리·문학·조형과 상징 등 아시아 각국 문화자원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는 수집·분류·연구하는 기능과 문화기획자·예술가 등 창의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역할도 포함돼 있다. 문화정보원이 수집한 아시아 문화자원은 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파크(오프라인), 컬러 아시아(온라인) 등을 바탕으로 공유되고, 문화전당 콘텐츠 기획·창작의 원천자료로 활용된다.

아시아문화정보원(정보원)에 들어서는 아시아문화연구소는 기초·기획·정책 연구를 진행해 다양한 문화부문에 활용가능한 지식 콘텐츠를 마련한다. 정보원 아시아문화자원센터는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아시아문화자원을 수집한다. 스토리 부분의 경우 아시아민주화운동(2015년), 아시아의 신화·설화(2016년), 아시아의 여신(2017년) 순으로 단계별 자원을 수집한다.

정보원은 또 아카이브(기록연구사), 도슨트, 공연스태프 등 5개 분야에서 문화전당에 참여할 전문인력 등을 교육한다.

문화창조원

아시아 문화 창조자들의 집



인문·예술·과학을 융합한 문화콘텐츠를 창조·제작하고 국제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공간은 한마디로 아시아문화 창조자들의 집이다. 문화창조원은 아시아연구랩, 동시대 예술랩, 미디어랩, 과학기술랩 등 5개(LAB)체제로 운영된다. 이 공간에서는 각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외 학자, 공학도, 예술인 등이 참여,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낸다.

문화창조원은 새로운 형태의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한 인프라도 갖추게 된다. 디지털 AV스튜디오(영상·음향 콘텐츠 제작), 기계조형스튜디오(전시·공연 실물 콘텐츠 제작), 복합스튜디오(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팅기반 콘텐츠 기획·제작) 등 3개 스튜디오가 갖춰진다.

이들 스튜디오와 랩의 역할은 콘텐츠 생산, 기술지원, 장비제공 등이다. 또 광주지역 문화관련 기관들과 협력이 이뤄지는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의 거점으로 조성된다. 또 문화창조원은 문화 콘텐츠 등을 문화전당 5개원(민주평화교류원·아시아예술극장·어린이문화원·아시아문화정보원)에 제공한다.

아시아예술극장

관객 참여형 공연무대



아시아 동시대 예술(Contemporary Art)을 창작해 선보이는 문화전당을 대표하는 공연공간이다. 대극장과 소극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관객이 공연을 관람하는 기존양식에서 벗어나 관객 참여형·체험형 공연이 무대에 올려진다.

2015년 문화전당 개관축제는 모두 27편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대만의 차이밍량 작가는 영화관 그 자체를 공연공간에 설치해 그 안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설치예술 공연이 무대에 올려진다. 싱가포르의 호추니엔 작가는 말레이 호랑이를 통해 아시아 식민주의 역사를 돌아보는 ‘만마리 호랑이’로 관람객들을 만난다.

아시아예술극장은 시즌 공연으로 공연 예술 전문가들의 작품을 매월 무대에 올리는 마스터전, 아시아 기획전, 신작소케이스(렌지던시 및 창제작 신작발표) 등 모두 18개 공연을 시즌제로 오픈한다.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광주지역 큐레이터가 기획한 공연, 광주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연도 선보인다. 아시아예술극장은 공연 창작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아시아공동제작·유통네트워크 시스템을 운용한다.

어린이문화원

아시아 어린이 문화전당



아시아문화를 기반으로 한 ‘아시아어린이 문화전당’이다. 어린이 문화원 아시아문화체험관에서는 아시아인의 삶, 과거·현재·미래 아시아 지식과 문명, 체험으로 만나는 아시아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창작교실에서는 유아, 초등저학년 등이 다채로운 창작체험을 할 수 있는 장·단기 교육이 실시된다. 어린이들은 문화다양성·예술창작·문화콘텐츠창작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아시아 어린이 문화캠프(수학여행 프로그램), 가족 뮤지컬 캠프(주말·방학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어린이 문화원은 개관 기획공연물로 이야기 올림통과 아시아 스토리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림통은 어린이들이 무대에 설치된 침대에 누워 동화를 듣는 청각 체험 공연이다. 아시아스토리 페스티벌은 아시아 이야기를 소재로한 연극·만화·인형극·오페라 등을 선보인다.

어린이 문화원은 문화콘텐츠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해 아시아어린이 문화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한해의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정겨운 추석입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따뜻하고 풍성한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제 2008-52호
(사)국내외통합호남향우회
 영·호남중앙지회 회장 박성현
(주)국가유공자 전우복지회
 박성현 외 임직원 일동